• 제 1 교시 언어 영역 •

정 답

1	④	2	②	3	③	4	①	5	①	6	③	7	②	8	⑤
9	④	10	①	11	⑤	12	③	13	⑤	14	②	15	①	16	②
17	④	18	④	19	⑤	20	①	21	④	22	④	23	①	24	⑤
25	⑤	26	③	27	③	28	④	29	④	30	②	31	⑤	32	⑤
33	③	34	⑤	35	①	36	①	37	①	38	①	39	③	40	③
41	②	42	⑤	43	③	44	⑤	45	②	46	④	47	②	48	④
49	③	50	②	51	④	52	③	53	③	54	①	55	②	56	①
57	③	58	④	59	⑤	60	②								

해 설

[듣기 대본]

1. 이제 여러분은 나비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나비는 오래 전부터 사람들에게 친근한 곤충입니다. 모양과 빛깔이 곱고 무늬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과는 달리 사람을 물거나 병을 옮기는 등의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나비는 모두 여덟 과에 250여 종입니다. 먼저 네발나비과의 대표적 나비들을 보도록 하죠. 날개의 무늬에 주목하면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맨 먼저 설명할 나비는 거꾸로여덟팔나비입니다. 이 나비는 주로 쐐기풀 등을 먹으며 번데기로 월동하는데 산지의 길가에 피는 꽃에 많이 모입니다. 봄과 여름에 날개의 무늬 빛깔이 변하는데, 여름에는 날개를 펼치면 여덟 팔 자를 거꾸로 세운 모양의 희고 굵은 띠가 나타나기 때문에 거꾸로여덟팔나비라고 합니다. 다음은 산은줄표범나비를 보도록 하죠. 윗날개의 안쪽에 표범무늬처럼 불규칙한 흑색무늬가 있습니다. 아랫날개는 광택이 나는 짙은 녹색인데 불규칙한 은백색 그물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나비는 주로 참싸리꽃과 큰까치수염꽃의 꿀을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굴뚝나비를 보시죠. 날개 빛깔이 굴뚝처럼 시꺼멓다 하여 이 이름이 붙여졌는데, 윗날개의 양쪽에 각각 두 개의 눈알 무늬가 있으며, 양 날개 끝에는 검은색 테두리가 있습니다. 이 나비는 주로 억새풀 숲이나 목장 근처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락그늘나비를 보기로 하죠. 날개는 어두운 갈색이며 바깥선 둘레는 조금 더 짙은데, 윗날개에 한 개, 아랫날개에 여섯 개의 흑색 눈알 모양의 무늬가 있는 것이 다른 나비와 구별됩니다.

2. 다음에 들려 드리는 것은 국어 수업 시간의 한 장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영훈 : 선생님 질문 있어요.
선생님 : 응, 뭔데?
영훈 : 선생님, '꽃'하고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하면 어떻게 읽어야 하죠?
'꼬슬', '꼬츨', '꼬들' 중에 어떤 게 맞아요?
선생님 : 영훈이는 뭐가 맞다고 생각하니?
영훈 : '꼬슬'인가요…?
선생님 : 그래, 그럼 한번 알아볼까? 우리말에서 받침은 대표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이 있지?
영훈 : 예.
선생님 : 대표음에는 몇 개가 있지?
영훈 : 일곱 개요.
선생님 : '꽃'의 받침인 'ㅊ'의 대표음은 무엇이지?
영훈 : 'ㄷ'이요. 어, 그럼 '꼬들'이라고 해야겠네요.
선생님 : 아니야. 우리말 발음 규정에는, "받침이 있는 말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 접미사가 오면, 앞말의 받침을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라고 되어 있어.
영훈 : 제 음가대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요? 아! 알았어요.
선생님 : 그럼 어떻게 읽어야 하지?
영훈 : '꼬츨'이요.
선생님 : 그래, 맞았어. 연습을 좀더 해 볼까? 칠판에 적을 테니까 정확하게 읽어 봐.
<칠판에 글씨 쓰는 소리>
이제 선생님이 제시한 말을 발음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이)

1번: 비'시'
2번: 비'즐'
3번: 소'츨'
4번: 흐'기'
5번: 가'비'

3. 다음은 '물과 수증기'에 대한 강의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뚜껑이 덮인 냄비와 열린 냄비를 똑같은 조건에서 가열하면 어떤 냄비가 먼저 끓을까요? 물론 뚜껑을 덮은 냄비가 먼저 끓습니다. 그런데 왜 두 냄비의 끓는 속도가 다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수증기에 대해 알아보아야 합니다.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로서 하얗게 보이는 김과는 다른 것입니다. 물이 끓으면서 생기는 김은, 수면을 벗어난 수증기가 공기 중에서 약간 식으면서 미세한 물방울로 응축된 것이죠. 그런데 이 김이 보이기 훨씬 전부터 수증기는 발생합니다. 건조한 방에 물을 떠놓으면 습도가 높아지죠? 물론 기온이 낮아질수록 양은 적어지겠지만, 이렇게 물을 끓이지 않아도 약간의 수증

기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물을 가열하면 물 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여 점점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원래 물 분자들은 상당히 강한 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가열하게 되면 분자들 중의 일부가 에너지를 흡수하여 이 결합을 끊고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활성도가 높아진 물 분자는 이웃 분자들을 밀쳐내고 자신의 공간을 넓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거품이며 이 거품이 터지면서 열에너지를 가득 품은 수증기가 공기 중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뚜껑을 열어놓으면 이와 같이 수증기를 통해 공기 중으로 열에너지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뚜껑을 덮어놓으면 그 손실을 막을 수 있죠. 그래서 뚜껑을 덮은 냄비의 물이 뚜껑을 열어놓은 냄비의 물보다 더 빨리 끓게 되는 것입니다.

4. 이번에는 영화에 대한 두 사람의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 : 오늘의 주제는 '영화와 과학' 입니다. 두 분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김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김선생(남자) : 네,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너무 몰입해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미있게 봤던 영화의 명장면 중에는 과학적 오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하드2>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는 악당이 탄 비행기가 연료를 흘리며 이륙하자 기름에 불을 붙입니다. 불길은 흐르는 기름 줄기를 타고 순식간에 올라가 비행기를 공중 폭발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여객기 연료는 쉽게 불이 붙지 않을뿐더러 화염의 전파 속도는 초당 10m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불길이 퍼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이 내뿜는 두꺼운 거미줄이 굳으려면 과학적으로는 일곱 시간은 걸려야 하는데도 곧바로 밧줄처럼 사용합니다. 영화를 볼 때, 재미로만 보지 말고 이런 과학적 사실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회자 : 아,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군요. 이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선생(여자) : 저도 평소에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일 뿐이죠. 대부분의 영화는 허구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는 상상력에 의한 비현실적인 설정들이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슈퍼맨은 초능력이 있는 사람, 용가리는 입으로 불을 뿜는 동물이라는 것들 말입니다. 이러한 설정들이 반드시 과학적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한다면, 영화를 하나의 예술로 보는 자세와는 거리가 있다고 봐요. 예로 들었던 <스파이더맨>의 경우를 봅시다. 스파이더맨의 거미줄과 현실의 거미줄을 일대일로 비교하는데, 그건 어린애들이 스파이더맨을 따라할까 염려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슈퍼맨에게 왜 중력을 무시하느냐고 비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슈퍼맨'이 원래 그런 거라는 설정에 수긍했기 때문입니다.

5~6. 이제 여러분은 인터넷 저작권 분쟁에 대한 토론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 : 요즘 온라인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적 유통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mp3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비스를 놓고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그 판정을 위해 법정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죠. 오늘은 이에 대해 찬반 양론을 대표하는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반협회측에서 먼저 말씀해주시죠.

여 : 네. 저희 협회에서는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mp3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비스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사회자 : 이에 대해, mp3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이트 운영자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 : 제 생각은 다릅니다. mp3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비스는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사회자 : 이 문제에 대해 각각 나름대로 생각하셨던 바가 있으셨을 줄 압니다.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죠.

여 :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mp3 파일의 모체가 되는 것은 음악 CD입니다. 그런데 음악 CD에 담겨 있는 음반은 분명히 음악 저작물에 속하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받는 사적 재산이죠. mp3 파일을 무료로 공유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음악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드디스크에 공유시키는 것은 이미 사적 복제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매체에 상관없이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남 : 그럴까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mp3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비스에서는 음악을 복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우리 사이트에서는 음악파일 리스트를 갖고 있지 않고, 다만 접속한 사용자들 중에서 파일 보유자의 위치만 알려주는 정보 교환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했을 뿐이죠. 게다가 인터넷의 기본 정신 중 하나가 바로 '공유'라는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상에서 디지털 콘텐츠는 자유롭게 유통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과 같은 디지털 시대에 온라인상의 파일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을 적용하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사회: 결국 자유로운 정보의 공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mp3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비스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저작권 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군요.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온라인 사이트에서 mp3 파일을 실시간으로 감상하는 것은 무료로 하고 다운로드는 유료화한다면 음악 파일을 공유하면서도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 해설]

[듣기]

1.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강의 내용에 따르면 거꾸로여덟팔나비, 산은줄표범나비, 굴뚝나비, 알락그늘나비의 무늬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우리말 받침 규정을 실제 국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규정에 따르면 앞말의 받침이 뒷말의 모음으로 이어져야 하므로, ① 비치 ② 비즐 ③ 소틀 ④ 흘기 ⑤ 갑시가 맞는 발음이다.

3. [출제의도] 강연을 듣고 물과 수증기, 김의 관계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강연에 따르면 수증기는 물이 끓기 이전, 즉 김이 나기 이전부터 발생한다.

4. [출제의도] 두 대담자의 의견이 다른 이유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남자는 영화에서 비과학적 요소를 찾아내고 있는데, 이것은 영화의 현실적 진실성에 주목하기 때문이고, 여자는 영화 고유의 특성은 허구와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설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한다.

5. [출제의도] 화자의 말하기 방식상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토론에서 사회자는 mp3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비스가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입장과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절충한 다음 내세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토론을 마무리하고 있다.

6. [출제의도] 화자의 주장과 근거를 연결지어 들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남자 화자는 mp3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이트에서는 음악을 복제하는 기능이 없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③은 'mp3 파일 전송 프로그램 서비스에서 음악을 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전제하므로 이 토론의 내용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

[쓰기]

7. [출제의도] 주어진 그림을 보고 주제를 생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세 번째 그림은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선거감시로 금권선거, 타락선거를 막자는 내용이므로 감시, 시민단체, 공명선거 등의 단어가 들어간 ②번이 정답

8. [출제의도] 주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사고 과정을 갖추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외모 차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신입사원 요건에 신체 조건을 명시하고 선발시험에서 면접을 강화하는 방안은 차별을 더욱 심화시키게 되므로 ⑤가 정답이다.

9.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을 바탕으로 글의 논지 전개 과정에 따라 구체적 방안을 적절히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형식적으로 한 원인을 '평가 기준의 문제점과 학생들의 인식 부족(봉사활동의 가치를 알지 못함)'으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은 기존 봉사활동의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학생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의 가치를 깨닫게 하거나 홍보활동과 교육활동을 동원하여 봉사활동의 가치를 알리는 것이다. 그런데 ④에서 봉사활동 장소를 늘려서 손쉽게 봉사활동을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형식적 봉사활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보다는 이를 조장하는 내용이다.

[오답풀이] ① 시간 위주로 봉사활동을 평가하던 기존의 봉사활동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에 해당한다. ② 학교와 봉사활동 기관이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교육을 하는 것은 봉사활동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활동과 연관된다. ③ 체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은 학생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방안이다. ⑤ 공익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봉사활동의 가치를 알리는 홍보활동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따라 적절히 창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 세 가지의 조건에 따라 답지 ①을 확인하면, 첫 문장에서 비유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다. 둘째 문장이 격언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③은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④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유도하지 않고 있다. ⑤는 속담이나 격언이 표현되지 않았다.

11. [출제의도] 자료를 활용하여 개요를 적절히 수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자료2>에서는 청소년에게 마음 놓고 뛰놀 수 있는 적절한 여가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청소년에게 적합하고 건전한 여가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 수 있다.

12. [출제의도] 고쳐쓰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① 부끄러움의 의미가 드러나 있고, ② 문단은 적절하게 나뉘어져 있으며, ③ '그러므로' 접속어가 잘못 사용되었고, ④ '체'는 부적절한 어휘이며, ⑤ 마지막 문장의 주어 서술어 호응이 바르지 못하다.

13. [출제의도] 문맥에 따라 어휘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람이 서로 관계를 맺어 하나가 됨'의 의미로 쓰이는 '결합(結合)'이 적절하며, ㉡에는 '둘 이상의 조직이나 기구 따위를 하나로 합침'의 뜻인 '통합(統合)'이, 그리고 ㉢에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 서로 합동하여 하나의 조직체를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든 조직체'의 의미로 쓰이는 '연합(聯合)'이 적절하다.

14. [출제의도] 어법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 주술호응이 어색한 문장이다. '바란다'를 '바란다는 것이다'로 고쳐야 한다. ③ 에서 '관습'은 문맥적으로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습관'으로 고쳐야 한다. 생활수준이 좀 좋아졌다고 한 것은 어색한 표현이다. ④ 는 문장성분이 과도하게 생략되어 의미전달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밝혀야 한다. ⑤ '그다지'는 뒤에 부정어와 결합하여 '그러한 정도로는'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이므로 '그토록'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15. [출제의도] 언어적 표현 원리를 이해하고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언어 표현을 묻고 있다. 남이 자신에게 칭찬할 때, 오히려 자신의 부족한 점을 표현함으로써 공손한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답지 ①에서 상대의 칭찬에 대해 자신의 장점보다는 부족함을 강조하고 있다.

②는 상대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표현을 하고 있고, ③은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칭찬하고 있고, ④는 상대방과 의견이 다를 때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을 부각하는 표현이다. ⑤는 상대방과 대화를 마무리하고 싶을 때, 상대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사양하는 표현이다.

[16-22 현대 고전 시 복합]

16.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눈'과 '매화향기'가 서로 대립되는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에서는 '행복'과 '불행', '밖'과 '안', '오늘'과 '내일', '밀물'과 '썰물'에서 이미지의 대조가 드러나 있다.

[오답풀이] ① (가)의 '여보게 이웃들아'에서 확인하듯이 시작품에서 청자가 드러난 것은 (가)뿐이다. ③ (라)의 '고향 강산은 천 리 밖에 먼데'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나)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가)에서 화자가 지향하는 이상세계인 무릉도원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다)에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⑤ (라)의 '지는 해 머금은'에서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지만 (다)에서는 드러나 있지 않다.

17. [출제의도] 시적 화자의 삶의 태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자연의 정취와 풍류를 무릉도원에 온 듯한 느낌으로 표현했고, (라)의 화자는 자연의 정취 속에서 호연지기를 갖지 못한 부끄럼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라)에는 시를 쓰려고 하니 호기가 부족하다고 말하며 대비적으로 자연의 정취를 강조하였지 시를 쓰고 후련해 하지는 않는다.

18. [출제의도] 표현상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는 추상적인 개념인 계절을 마치 꽃처럼 피고 질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였고, <보기>는 겨울 밤의 긴 시간을 마치 사람의 몸통처럼 한 허리를 잘라낼 수 있다는 가정이 드러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19.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내일의 별'은 화자가 추구하는 미래의 희망을 의미한다. <보기>의 시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시어는 '태양'이다.

[오답풀이] ①, ②는 어두운 현실을 뜻하고, ③은 허물어진 삶의 터전을 의미하며, ④는 조국으로 볼 수 있다.

20. [출제의도] 문학 작품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작품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라'라는 어미는 직접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시적 화자의 강인한 의지를 알 수 있다. ② 작품과 독자의 관계에서 작품을 감상하였다. ③ 작가와 작품의 관계에서 작품을 감상하였다. ④ 작가와 작품의 관계에서 작품을 감상하였다. ⑤ 시대적 현실과 작품의 관계에서 작품을 감상하였다.

21. [출제의도] 화자의 태도를 고려하여 특정한 인물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의 화자는 마음먹기에 따라 불행한 상황이 온다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런 화자가 성적이 떨어져 실의에 빠진 학생에게 말을 한다면 생각하기에 따라 지금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언급할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22. [출제의도] 시에 쓰인 표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서는 비유적 묘사의 기법이 쓰이고 있으며, ㉡에서는 산맥의 역동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에서는 대구와 반복의 표현 기법이 나타나며, ㉣에서는 시적 화자와 고향 간의 심리적 거리를 '천 리'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23-26 예술]

23.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달항아리의 명칭이 붙은 이유와 달항아리를 만드는 법은 첫째 문단에, 한옥의 구조와 휘어진 대들보가 사용된 시기는 둘째 문단에 드러나지만, 분청과 철화에 나타난 미의식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24.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위 글은 아졸미에 관한 글로 어눌한 형과 세련된 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한복의 비균제성, 비대칭성이 드러난 사진이 적절하다. 정답은 ⑤이다.

25. [출제의도] 주어진 글에 담긴 정보의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일그러진 달항아리, 휘어진 대들보, 삐뚜름한 대접에서 나타나는 미의식은 형의 어눌함과 상의 세련됨이 드러난 아졸미이므로 정답은 ⑤이다.

26.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평균치를 넘어서는 우아함을 갖춘 상은 어느 정도 형의 어눌함을 수반한다'는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형의 어눌함에 상의 세련됨이 드러나는 경우가 필요하다. 추사체는 김정희가 쓴 필체로 어린아이가 쓴 치졸한 맛을 풍기므로 ③이 정답이다.

[27-30 사회]

27. [출제의도] 주어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드러나는 남녀의 차이를 대화양식, 스트레스 대응양식, 미디어 시청양식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참된 의미의 공유를 위한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참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방면에 우월성을 보이는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28. [출제의도] 주어진 글에 담긴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둘째 문단에서 남성과 여성이 형식면에서는 같은 언어체계를 사용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④가 정답이다. 셋째 문단에서 남녀의 스트레스 대응방식과 정서적 욕구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고, 둘째 문단에서 남성은 직접적으로 여성은 간접적으로 표현한다고 했으며, 넷째 문단에서 남녀의 미디어 시청양식의 차이는 직업적 특성도 고려해야 하지만 성별의 차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29. [출제의도] 주어진 글에 드러난 설명 방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의사소통 방식에 드러나는 남녀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A] 에서는 대화 양식에서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대응 양식과 상대에게 원하는 정서적 욕구의 차이점을 대조의 방법을 통해 부각시키고 있다. ④에서 동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대조의 방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①은 분류, ②는 과정, ③은 분석, ⑤는 유추에 의한 설명이다.

30. [출제의도] 주어진 글에 담긴 정보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 : ㉡은 이 글의 내용을 고려하면 상보적 관계이다. ②의 노동과 휴식이 하나를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필요로 하는 상보적 관계이다. ①은 수단과 목적 관계, ③은 부분과 전체, ④는 대등,병렬, ⑤는 상하관계이다.

[31-34 과학]

31. [출제의도] 사고 과정과 세부 정보에 따라 글의 내용을 적절히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내용은 <보기>의 '과정'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이 글은 ①에서 보듯이 지구상의 공룡이 멸종되었다는 현상의 이유를 밝히는 글이다. 과학자들은 ②와 같이 운석 충돌에 의해 공룡이 멸종했다고 추측하고 있고, ③과 같은 다양한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또한 ④와 같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 과학자들은 ⑤와 같은 가설을 제시할 수도 있겠으나, 이 글에서는 공룡이 진화하지도 못하고 멸종했다고 단정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적절히 파악할 수 ㅇㅣㅆ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판단하다' 또는 '인정하다'의 뜻이므로 ⑤번과 가장 유사하다. ①은 '무엇을 바라거나 의지하다'의 뜻이며, ②는 '기회, 때, 시기 따위를 살피다', ③은 '대상의 내용이나 상태를 알기 위하여 살피다', ④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의 뜻으로 각각 쓰였다.

33. [출제의도] 주어진 글에 담긴 정보의 구체적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①~⑤번 답지의 내용들은, 운석 충돌 이후의 영향에 대한 각종 가설들이다. 그 중에서도 이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충돌 이후 발생한 먼지가 태양광선을 가림으로 인해 지구의 기온이 급락(急落)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근거는 셋째 문단의 '~급속한 기온 변화'와 넷째 문단의 '~길고 긴 겨울'에서 찾을 수 있다.

34. [출제의도] 주어진 글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한 후, 외부 자료에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의 내용은, 운석의 충돌에 의한 충격으로 기온이 하락하여 공룡이 멸종했다는 것이며, <보기>는 운석의 충돌에 의해 기온이 급상승하여 공룡이 멸종했다는 어찌 보면 상반된 내용이다. ①의 내용인, 운석의 충돌이 공룡 멸종의 이유였다는 의견은 동일한 것이며, ②~④와 같은 반응은 자유로우면서도 두 글의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⑤번에서는 공룡을 '적응력이 뛰어난 동물'이라고 했으므로 지문의 내용과 어긋난다.

[35-38 언어]

35. [출제의도] 주어진 글로부터 합당한 사실을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설명한 국어의 특징에 주목해 보면, 국어에는 높임법이 발달하였고 친족호칭어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감각어가 발달하였다. 그리고 문장 구조상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36. [출제의도] 주어진 글의 진술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적절히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동일한 내용에 대한 언어 형식이 우리말, 영어, 그리고 러시아어에서 달리 나타나는 것은 언어의 내용과 형식 간의 관계가 자의적인 특성을 띠기 때문이다. ①은 언어의 자의성을 뒷받침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37. [출제의도] 주어진 글에서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를 적절히 이끌어 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예를 들어 '나 오늘 이발했어.'라고 하면 머리카락을 자른 사람이 '나'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를 빼러 갔다'의 경우에도 실제로 이를 뺀 사람은 '나'가 아니라 치과 의사인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어에서 동작이나 행위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입증한다.

38. [출제의도] 주어진 글을 읽고 나서 적절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의 글쓴이는 첫 단락에서 언어는 문화를 반영한다고 진술한 다음 마지막 단락에서는 언어의 습득을 통한 문화 형성의 과정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와 문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39-42 고전 소설]

39. [출제의도] 주어진 작품의 개괄적인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옳다, 옳다--총명타 하더뇨?'란 호승의 말을 통해서 양소유가 자신의 스승을 알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부는 어디로서 오신고'에서 '사부'는 호승을 대접해서 이르는 말로, 양소유가 호승이 육관대사임을 알아보고 한 말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양소유는 토번을 정벌할 제, 자신의 꿈 속에서 호승을 만났다고 말하고 있다. ② 호승(육관대사)이 양소유(성진)를 꿈에서 깨어나도록 하고 있다. ④ 줄거리와 성진이 인간세계를 회상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인세와 꿈을 --깨지 못하였도다'에서 성진이 꿈에서 깨어났지만 아직도 인간 세상과 꿈을 구분하여 육관대사에 혼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 [출제의도] 작품 속의 인물의 처지를 다른 문학 작품 속 인물의 처지와 비교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성진은 꿈에서 깨어나서 양소유로 살았던 인간 세상이 덧없음을 깨닫는다. 제망매가의 화자는 갑작스런 누이의 죽음 때문에 인생무상을 느껴 불도에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눈다면 이 같은 처지를 공감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③ 성진이 인간 세상에서 깨어나 인간 세계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지, 죽음을 극복하려 한 것은 아니다.

41. [출제의도] 고전 소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과 연관지어 주어진 작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줄거리와 지문을 연관지으면 작품의 주인공이 양소유가 아니라 성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이 역전적으로 구성되기보다는 성진을 중심으로 순차적(시간의 흐름에 따라)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볼 때, '현실-꿈-현실'의 이중적 환몽 구조이다. ③ 성진이 양소유로 환생하여 속세의 부귀공명이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는 전체 내용으로 보아, 사건이 성진을 중심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다. ④ 양소유와 성진의 내면 심리를 직접 서술하고 있다. ⑤ 성진이 꿈에서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는 장면에서 이 작품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42. [출제의도] 주어진 작품을 다른 장르로 적절히 변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육관 대사는 꿈에서 깨어난 성진이 아직도 인세와 꿈을 구별하지 못하자 이를 훈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자부심에 찬 어조보다는 훈계조나 연민에 찬 어조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분장한 얼굴을 통해서 호승의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② 도술을 부리는 장면은 특수 효과 장치를 통해 시각적으로 재미있게 표현할 수 있다. ③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는 장면을 오버랩하면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④ 양소유로 살았던 삶의 모습과 인생 무상을 깨달은 현재의 모습을 대비하면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는데 효과적이다.

[43-46 수필]

43. [출제의도] 주어진 두 작품간의 공통적인 표현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돌층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삶의 자세를 생각하고 있고, (나)는 가로등을 보면서 자신의 지나온 삶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44. [출제의도] 주어진 작품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적절히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글쓴이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보다 어떤 과정을 거쳐가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삶을 과정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이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답지 ⑤이다.

(가)에서는 성공한 삶을 지향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은 부적절한 반응이다. ②는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으니 현실적인 삶의 목표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 ③은 상황에 따른 즉흥적인 대처를 강조한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에서처럼 이 글을 과거에 대한 청산과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보기 어렵다. 논지에서 벗어난 반응이다.

45. [출제의도] 글쓴이의 태도를 적절히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글쓴이는 가로등을 인생에서의 안내자이자, 삶의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자신의 삶의 모습을 희망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① 절대자인 '신'이 등장하지만 신에게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없다. ③ 과거와 현실이 대등하게 비추어주며 자신의 인생여로를 함께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미래를 더 중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삶에 대한 절망은 표현되지 않았다. 제시문의 끝 부분에서의 절망은 가정적 상황을 의미한다. ⑤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다.

46. [출제의도] 주어진 글의 서술상 특징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글쓴이는 다양한 표현법을 활용하여 글을 쓰고 있다. ①은 '벌떼처럼 윙윙거리다'에서, ②는 무엇이라 표현할까?'에서, ③은 '어줍잖은 시'에서, ⑤는 [A] 의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④는 '흐뭇한 고독감'이라는 말에서 보듯이 사실이 아니다.

[47-51 현대 소설]

47. [출제의도] 소설 감상의 방법에 따라 소설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에서 말한 탐구적 과제는 소설을 읽으면서 곧바로 확인할 수 없는 소설 이해에 의미 있는 과제를 말한다. 따라서 ②는 작가가 배금주의 사회 현실을 비판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내야 소설을 제대로 읽는 것이 된다.

[오답풀이] ①, ④, ⑤는 소설 속에 정답이 있는 발견적 과제. ③은 소설 이해와 무관한 의미 없는 질문이다.

48. [출제의도]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마치 1인칭 주인공 시점의 화자처럼 진영의 시선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진영의 의식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

49. [출제의도] 소설의 공간적 배경이 주는 효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소설에서 공간적 배경을 절로 설정한 것은, 절이란 성당, 병원 등과 함께 이 사회에서 불신이 끼어 들어서는 안 되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펼쳐지는 불신은 다른 곳보다 이 소설의 주제인 배금주의에 의한 불신시대를 표현하는 데 효과적이다.

50. [출제의도] 인물의 대화 양상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소설의 대화 진행 양상은, 중이 노골적으로 모멸감을 준 뒤, 다른 중은 표면적으로는 위해 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역시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이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앞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젊은 중은 '영가의 노자가 너무 적군요…'라고 말하고, 또 '이걸 가져 가셔야지 보자기를…'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젊은 중이 진영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해서 말한다면 말을 마친 다음 대답을 듣기도 전에 들어가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그 말 다음에 진영이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돈이 있어야지요'라고 말했던 젊은 중의 말을 떠올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표면적으로는 생각해 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비아냥거리는 말투인 ②. ②는 '기다렸다가, 남은, -이나, 하나, 얻어' 등의 말로 볼 때 빈정대는 말투로 봐야 한다.

51. [출제의도] 인물의 의식 변화 양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 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진영은 제시된 지문에서는 제사음식을 안 가져가고, 아침을 안 먹는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을 한다. 상대방과 직접 대항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들의 위패와 사진을 태우며 적극적 항거 의지를 다지고 참나무를 휘어잡고 현실 세계로 당당히 돌아온다.

[오답풀이] ①은 적극적 저항의 결의를, ②는 문수를 모순된 이 사회에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을, ③은 과거를 정리하는 모습을, ⑤는 현실로 당당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52-55 인문]

52. [출제의도] 주어진 글의 논지 전개상 특징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논지 전개상의 특징으로, 글쓴이는 현대 올림픽에 대한 현상을 플라톤, 네오마르크시스트, 기철학의 이론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비판하며, 마지막 문단에 그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①, ②, ④, ⑤ 는 거론되지 않았다.

53. [출제의도] 주어진 글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의 근거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플라톤의 비판을 현대 스포츠상업주의 모태가 되었다라고 한 이유는 그 앞문장에 드러나고 있다. 작가는 정신을 신체보다 우선한 플라톤의 이원론을 스포츠상업주의의 모태라 생각하고 있다.

54. [출제의도] 주어진 글의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를 적절히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순수한 아마추어리즘을, 본문의 ㉡은 순수한 아마추어와 국가 주도의 아마추어리즘의 자리가 뒤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① 주객전도: 주인과 객의 위치가 서로 뒤바뀐다는 뜻으로, 사물의 경중, 선후, 완급이 서로 뒤바뀜. ② 설상가상: 난처한 일이나 불행이 엎친 데 덮쳐 잇따라 일어남. ③ 진퇴양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매우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음. ④ 선공후사: 공(公)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사로운 일을 뒤로 미룸. ⑤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함.

55. [출제의도] 글쓴이의 견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글쓴이는 현대 올림피즘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①은 네 번째 단락의 '하는' 스포츠에서, ③은 세 번째 단락의 '인간 소외라는 비극'에서, ④는 네 번째 단락의 끝부분에서, ⑤는 두 번째 단락 끝부분의 '스포츠상업주의'에서 확인할 수 있다.

[56-60 기술]

56. [출제의도] 핵심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설명을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의 첫 문단에 주목하면, 생물 농약은 원래 흙 속에 사는 병원균으로부터 식물을 보호할 목적에서 개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생물 농약으로 쓰이는 미생물은 식물 성장을 돕는 물질을 포함하며, 미생물이 만든 항균 물질은 농작물의 뿌리에 침입하려는 곰팡이나 병원균의 생장을 억제하거나 죽게 한다. ③ 병원균이나 곤충, 선충에 기생하는 종들을 사용한 생물 농약은 유해 병원균이나 해충을 직접 공격하기도 한다. ④ 생육촉진세균은 뿌리 표면이나 내부에 기생하면서, 성장을 저해하는 균이나 병원체의 침입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⑤ 생물 농약은 친환경적이고, 계속 사용해도 약효가 감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개발비도 화학 농약 개발비의 1/10 수준에 머물러 경제적 측면에서 유리하다.

57. [출제의도] 두 가지 정보를 비교하여 변별되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항생작용을 위주로 한 생물 농약은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고, 그 효과가 식물 전체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생육촉진세균을 이용한 생물 농약이 개발되면서부터 그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58. [출제의도] 글쓴이가 사용한 글쓰기 전략을 적절히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세 번째 단락에서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여 '유해 병원균이나 해충을 직접 공격하는 생물 농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첫 번째 단락에서는 생물 농약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59. [출제의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농약을 사용함에 따라 그 약효가 점차 줄어들지 않는다면, 해충의 저항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없을 것이라 추리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내성(耐性)'의 또 다른 의미에 해당하는데, 주로 내열성(耐熱性), 내한성(耐寒性) 등의 단어에 사용된다. ② '내성(耐性)'의 또 다른 의미이다. '내성이 생기다'라고 할 때 사용된다. ③ '생분해'라는 용어에 대한 뜻풀이에 해당한다. ④ '생물학적 동등성'이라는 용어가 갖는 의미이다.

60. [출제의도] 생략된 어구를 문맥의 흐름에 비추어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뿌리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황량하다는 점에서 '사막'에 대응되고, 뿌리 주변은 안락한 서식 환경을 제공받는다는 점에서 '오아시스'에 대응된다. 그리하여 근권 미생물에게 뿌리 주변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